

1) 데칼로그 (3) 중재 (출애굽기 20:4~6)

① 설교요약본

a. 리추얼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근 “밋미” (meet me)라는 기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nice to meet me!”라는 표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돕는 기업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종종 목격합니다. 온전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집중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가운데 “리추얼”이라는 용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정서적 활동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사람들은 “리추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모든 행동이 교회 안에서 이미 예전부터 이루어지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말씀큐티하고, 성경통독하고, 봉사활동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각자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일이 이런 일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과거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b. 영적 리추얼을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데칼로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 데칼로그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일종의 리추얼입니다. 데칼로그의 말씀을 통해 신분을 넘어 생각과 삶의 방식에서의 자유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도록 하나님은 리추얼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회개를 통해 이전의 잘못 이해하고 있던 자아를 내려놓고,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아를 회복하여 영적성장을 이뤄가는 과정을 우리는 삶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리추얼은 스스로가 길을 찾으며 자아의 완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먼저 만날 때 이루어지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궁극의 목표를 성취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한걸음씩 잘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c. 왜 우상의 형상을 금하실까?

오늘 서론이 유독 길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리추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 리추얼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람은 시각적 유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며 이루어지는 “리추얼”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시각적 요소를 통한 과정을 분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놓은 책, 그림 등을 우리는 접하며 막연했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러니 하게도 그 본질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 그 책과 그림 같은 것을 떠받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우상과 같이 변해버린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d.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상이 나쁜 줄 알면서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4~1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아담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그 욕심은 죄가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 욕심의 자리로 인간은 나아갑니다. 금송아지로, 미술품으로, 이성과 과학으로 인간의 욕심은 끊어지지않고 계속해서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욕심때문인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피하고자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른것에 몰두하며 그렇게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e. 우상의 중재가 아닌 마음의 예배

고대인들에게 우상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은 신의 현현 그 자체였습니다. 그 우상을 통해 사람들은 신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성전과 법궤와 제사장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순 없었습니다. 데칼로그 두 번째 말씀의 본질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순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일순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로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하신다.” 어떤 우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우리는 두 번째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